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디자인 인체》 가장 완벽한 생물, 인체!

글 권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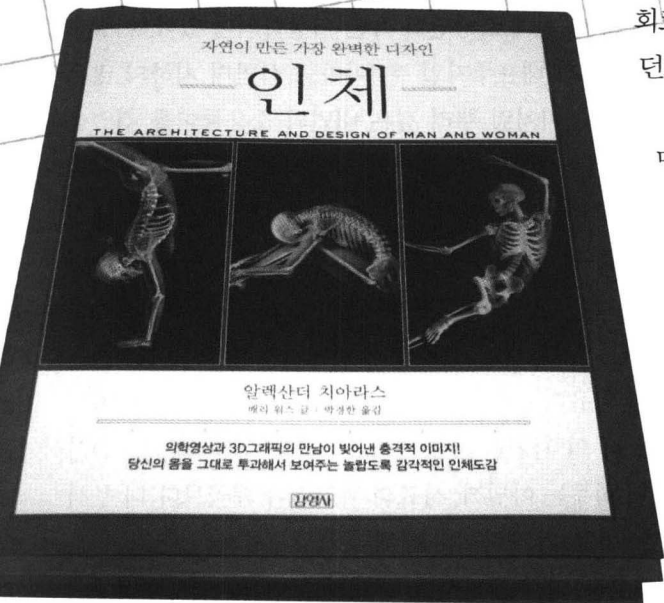
한마디로 놀랍다!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몸’, 인체에 대해 많은 글을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냈었다. 그러나 읽고, 본 중에서 가장 마음 설레게 하는 책을 만났다!

한때 ‘인체의 신비’ 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만... 실물과 아주 닮은 실감나는 ‘표본’ 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지방으로 번갈아 여러 번 전시를 하였다. 시체를 특수약품과 물질을 처리하여 생명체에 손상 없이 그대로 생생하게 만든 박제(?)품이었다. 피부, 근육, 뼈는 물론이고 내장의 구적구석의 신비를 볼 수 있었던 전시회로, 다들 아! 내 몸이 이렇게 생겨있구나 하고 탄성을 지르지 않았던가.

필자도 《인체기행》이란 책을 썼다. 중간 중간에 그림을 넣어 설명을 돕고 있지만 역시 읽는 글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치밀하고 딱딱한 ‘뼈 같은’ 글이 아니라 부드럽고 성근 수필 성 글이라 읽을 만 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것 말고도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라는 만화를 곁들인 어린이용 책도 썼다. ‘인체’가 전공이 아닌 필자 같은 사람도 이런 장난(?)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인체에 관한 책이 세계적으로 출판 되었겠는가?

이러나저러나 여기 소개하는 이 책에 비하면 나머지 책은 구닥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디자인 인체》(The Architecture and Design of Man and Woman)(김영사)라는 제목의 이 책은 무척 새롭고 신선하며 ‘한 수 높은 책’ 이라 해야 하겠다. 겉표지 아래의 두 줄의 글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의학영상과 3D그래픽의 만남이 빚어낸 충격적 이미지! 당신의 몸을 그대로 투과해서 보여주는 놀랍고도 감각적인 인체도감” 이란다. 그러다 보니 뼈는 뼈대로, 근육, 혈관, 림프관 등은 몸을 자유자재로 들여다 볼 수 있게 영상화하고 있다. 책 꺼플에도 세 ‘뼈 사람’ 이 있다. 물구나무 선 뼈, 앉아 허리를 굽혀있는 뼈다귀, 서서 몸을 휘두르는 율동중인 해골인간들이다. 몸 뼈의 운동과 모양, 굽힘과 펴름을 보여준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면 뼈가 저렇게 되는구나!?

영상작가와 그것에 글을 붙인 사람, 번역을 한 사람 삼박자가 어울려져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 하겠다. “알렉산더 치아라스(Alexander Tsiaras)는 의학연구가요 그래픽아트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포토저널리스트 겸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책에는 단층촬영기법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디자인 인체》
알렉산더 치아라스 · 배리 위스 지음 | 박경한 옮김 | 김영사 |
268쪽 값 39,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 · 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얼룩머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과 고해상도 현미경, 최신 영상장비로 인간의 몸을 재구성하여 '가상 인체해부'를 시행하였다고 하며, 그 결과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엑스레이 영상과는 달리 살아있는 인체 내부를 처음으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하였다는 것이다. 차아리스의 작업은 사진이 아니라 시각화 과정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제작한 그래픽 등을 적용하고 섬세한 조직까지 분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한 이미지로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치아라스는 글을 모르는 문맹(文盲)이란 말인가? 배리 워스(Barry Werth)가 작품에 설명을 일일이 붙였다. 그는 〈뉴욕타임스〉 등 수많은 매체에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적인 스타일로 풀어쓴 과학칼럼을 기고해 왔고, 생물학분야에서 뛰어난 과학저술가에게 주는 람다 저술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치아라스와 함께 《임신의 신비》(From Conception to Birth: A Life Unfold)를 작업했다고 한다. 진짜 워스의 글 솜씨를 알아줘야 한다. 사진 설명을 멋있게 하는 것은 두 말 할 것 없고, 시나 잠언을 적재적소에 잘도 인용하고 있다.

윤희이 박경한 교수는 휘문고, 서울의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부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더 반갑다"고 하지 않던가. 강원대학이 어딘가. 필자가 25년을 밤별이한 곳이다. 그래서 더더욱 반갑다. 박 교수는 여러 책을 번역하였으니 《스넬 임상신경해부학》 《휴먼 브레인》 《새 의학용어》 《사람 발 생학》 등이 있다.

계속 변방만 들었다. 책장을 넘기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에 잠긴다. 야! 이럴 수가 있나?! 한마디로 현란하고 찬란한 사진에 눈이 빠져버린다. 그리고 어찌 인간이 이런 조직, 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회의감에 빠진다. 신(神)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정교하고 다양한 인체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는가. 멋있는 붙임 설명이 사진을 더 돋보이게 하고 이해를 도우며, 중간 중간 인체에 있는 특수한 부위와 다른 생물을 비교하고 있는 것도 흥미를 끈다. '자연의 닦은 꼴'을 여러 것(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콩팥의 혈관과 누룩곰팡이, 방광의 속 면과 버섯의 주름, 속귀의 달팽이관과 달팽이 껍질, 혀의 표면과 송충이의 가시, 손톱의 표면과 봉어의 비늘이 꼭 빼닮았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봐나가다가 또 다른 느낌을 받으니,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10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여러 조직이 되고, 조직은 모여서 기관을 만든다. 저 많은 조직, 기관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다치거나 사고(예로 암)가 나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제 할 일을 다 하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케 한단 말인가.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다! 저런 해부학적인 것 말고도 생리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기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가를 알기에 더욱 생명이 신비롭기만 하다. 사진 촬영에다 영상배열, 조합 등 기발함 기법에도 혀가 내둘린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구조가 다양하고 정교함에 놀란다! 책장을 넘기다가 4장(87쪽)에 있는 사진은 나의 혼을 빼놓는다. 세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어머니(빠)가 아래에 거꾸로 선 '빠 아이'를 안고 있다. 빠로 본 산모와 태아! 태아가 들어있는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9장의 '허파' 사진에 왔을 때, 너무나 보드랍고 연함을 보면서, 내가 담배로 저 연분홍 허파를 검게 칠하고 있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충격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더 피운 어리석은 나다. 허파엔 나쁘지만 정신(보이지도 않는)에 좋다고 자위하면서 말이다. 사실 사람들이 간이 어느 쪽, 어디에 붙어있으며 위와 창자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른다. 대학생들도 몰라서 꾸중을 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는 네 몸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해보기도 한다. 10장(199쪽)을 보면 어디에 어느 기관이 있는지 일목요원하게 볼 수가 있다. 12장의 '생식계통'에서 촬영기술의 극치를 느낀다. 회미하게 남녀 몸체가 포개져 있는데, 남성의 생식기(음경)가 또렷이 여성의 질에 꽂혀있는 것이 아닌가! 자궁 아래까지 깊게 들어간 음경! "질의 바깥 1/3에서는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축축해지지만 속 2/3는 약간 확장되고 자궁이 상승한다. 이 모든 과정이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다."라는 설명문에 귀를 기울인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있다(260쪽이 넘음). 생명의 포장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세상을 느끼는 관문, 꿈의 건축 소재, 운동의 역학, 인체의 화학공장, 펌프와 수도관, 보안 프로그램, 숨을 쉰다, 고로 존재한다, 몸속의 방앗간, 물과 하수도,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 복제 등이다. 멋지게 제목을 붙여서 읽고 싶은 마음을 일게 한다.

이 책의 빼어난 점을 필설로 다 할 수 없어 책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독자의 '눈'의 도움이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한글서체**